

블로그의 미시담론으로 고찰한 광장의 의미 해석 연구: 전주시 풍남문광장을 중심으로

김준영*

Study on Meaning of Square through Reading the Micro Discourse in Blog: Concentrated on Pungnam-Mun Square in the City of Jeonju

Jun-Young Kim*

요약 : 광장은 역사적으로 도시의 가장 기억될 만한 사건이나 이벤트를 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광장은 공론이 형성되고 공유되는 장으로 사용되기에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지적대로 과거 공론이 소수 권력층의 점유물이었다면 현재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공론의 형성은 좀 더 개인적, 일상적 수준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실적 공간으로서 광장이 역사적으로 공론형성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면 현대에 많은 의사소통 방법이 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장이 인터넷 가상공간인 블로그 공간의 개인적 의견에 대한 평가와 공유를 통해 좀 더 쉽게 공론이 형성되는 장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는 개인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미시담론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보고 2012년 형성된 전주시 풍남문광장에 대한 블로그의 평가 및 행태 등을 추출하여 보았다. 지역 도시의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장소성 있는 테마광장 조성이 많아진 가운데 풍남문광장은 조성 이후 전주시의 정책적 기획행사를 담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블로그의 글들을 통해 점점 더 광장의 기능이 당초 조성 의도를 넘어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되며 담론의 형성까지 가능할 수 있다. 풍남문광장에서 벌어지는 담론을 개인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내용들로 범주화하기 위하여 네이버의 블로그 '검색내 검색'을 통한 세부 검색을 사용하였다. 광장의 정치적, 사회적 집회가 직접적으로 빈번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글에서 시작되는 미시적 담론은 공감대 형성이나 논쟁을 통해 공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궁극적으로 공론형성의 장으로서 광장의 역할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한 미시담론과 상호 보완하며 공론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 장소성, 도시 광장, 미시담론, 공론, 가상공간

Abstract : Historically, the square is usually the place that holds the most memorable events in the city. In this regard, the square can be understood as a sphere of public opinions. As Jürgen Habermas once pointed out, only a few upper class people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n the past time, but today whoever can express and share his opinions in daily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is study assumed blog's descriptions or evaluations of public square where public opinions are generated can be developed into microscopic discourses, because they are expressed from personal experiences or opinions and shared among people through Internet connection. Jeonju Pungnam-mun Square was built in 2012 for a marketing strategy of the city of Jeonju, and it became a place where the civic planned cultural events happened. However the blog contents related with square have become more diverse while square gets more popularity. I used search in search technique in Naver to categorize contents listed in terms of specific issues such as personal, historical,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ven if the political or social assembly in the square happened not frequently, microscopic discourse that begins in the individual blog's article has enough potential to be developed into public discourse through the open debate or consensus. Ultimately, the public discourse formation is still expected through the public square with the interaction of microscopic discourse in the personal internet communication media such as blogs.

Key Words : Sense of place, Urban square, Microscopic discourse, Public discourse, Virtual space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ju University, junyoungkim@jj.ac.k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역사적으로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적 공간이었다. 고대 그리스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은 도시 내에서 공적 행사나 토론의 장이었으며 이러한 점은 중세의 광장이나 근대의 광장에서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양의 광장은 도시공간에서 자연스러운 기억과 역사적, 사회적 다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 내 광장은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공론이 형성되고 표출되는 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장인 광화문광장 역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론이 형성되는 장이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장소가 물리적인 공간보다도 가상적인 공간으로 대체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Jürgen Habermas가 공론의 장으로 카페 같은 물리적 공간을 언급하였듯이, 이것이 소수의 권력층이나 귀족층에 의해 독점되던 것에서 현대에는 오히려 공론의 장이 확대되며 인터넷 가상공간이 합세함으로 상당부분 개인화,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공론이 미시적 담론에서 출발하고 그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공론으로 변화 발전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이전 도시구조는 서구와는 달라 서울의 경우 조선시대에 육조거리가 있었지만 이것이 공공광장의 성격을 띠었는지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흥성태에 의하면 일제는 1913년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며 세웠던 원구단자리에 조선호텔을 세웠으며 1926년에는 조선호텔과 경운궁사이 중간에 경성부 청사를 세워 오늘날과 같은 시청 앞 공간구조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의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이로써 광장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산업화기라는 근대를 겪으면서 형성된 새로운 도시구조라고 할 수 있다(흥성태, 2006). 시청 앞 광장은 근대 서울의 역사 속에서 1987년 6월 항쟁이나 이한열을 보내는 노제, 2002년의 월드컵 행사 등 굵직한 역사적, 사회적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여의도광장은 산업화 시기의 대표적 광장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여의도 광장은 다시 도시 내 공공공간이 되었지만 조성 당시엔 국가공론을 기획, 선전하기도 하고 큰 행사를 치르는 비어있는

큰 공간이었다.

90년대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 도시들은 각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 광장은 도시 내 열린 공간으로 기획 조성되고 있다. 도시 디자인에 의한 장소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형성된 광장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여행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광장의 공간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다 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장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평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의견들이 블로그를 통해 재현됨을 착안하여 블로그 내 미시담론을 통해 광장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조성목적에서 출발한 광장이 지역의 공공적 행사를 담는 것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집회와 이벤트를 담는 것으로 확장되며 그것이 갖는 도시 내 장소적 의미는 다층적인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 의미들이 중첩해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나 공론으로 발전될 수 있다.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는 내용은 전통적 공론형성에 비해 개인의 일상적 경험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공감될 수 있어 공론형성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광장에서의 기존 집회 등을 통한 공론형성에도 일정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본 논문이 광장에 대한 블로그에서의 재현과 평가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특정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담론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어떠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은 사회구성원 간 접촉을 전제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접촉은 시대에 따른 특정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 등을 도시 내 광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광장은 도시 내 사람들의 접촉이 빈번하였고 이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최근 지자체들의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이나 관광수의 창출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주시는 노송광장, 오거리광장, 서학광장 등을 조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2012년 조성한 풍납문광장을 분석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출처 : 다음지도 웹사이트.

대상으로 한다. 풍남문광장은 풍남문을 감싸고 있는 로터리의 동측 대지로 대건신협이 있던 부지를 철거하고 이축하면서 조성한 2,500㎡ 넓이의 공간이다(그림 1). 전주객사에서 풍남문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도시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동측으로는 한옥마을과 이어지고 있어 전주시의 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사람들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풍남문광장이 전주시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광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세월호 집회나 선거 유세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1인 블로그를 통해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을 통해서 도시 장소성을 보고자 한다. Thomson(2002)은 1인가구나 다민족 소수자들이 도시 주거비율에서 높아지면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적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면접촉을 대체하는 가상공간 접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공간의 이용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가상공간에 의한 대면접촉은 오히려 공공공간의 이용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Thomson, 2002). 이는 가상공간이 공론 형성을 위한 공공집회의 사전 준비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집회가 좀 더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1인 미디어의 활성화는 공공공간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쉽게 공유시키며 일반화 할 수 있다. 이 중 1인 미디어로서 블로그는 개인의 장소에 대한 일상적 경험을 기록하는 매개체로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블로그에 표현되어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미시담론의 시작 가능성

을 가정하여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자 한다.

이제이·성종상(2015)은 서울숲에 대한 블로그에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을 논한 바 있는데 분석 장소에 대한 일반인의 일상적 평가가 시계열적으로 변화 발현함을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네이버 상세검색을 통하여 전주시 풍남문광장을 검색하여 블로그에 나타난 장소에 대한 미시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이버에서 풍남문광장을 키워드로 2011.01.01. - 2016.05.23. 동안 검색한 블로그는 1,657건이다. 이를 관련도 순으로 정렬할 때 블로그 중 뒤로 갈수록 광장 자체와 관련한 의견이나 사건보다는 단순 언급 등의 관련도 낮은 블로그도 상당히 볼 수 있어 정렬된 블로그 중 상위 150건의 자료를 통해 검색기간에 대한 풍남문광장의 기술 경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풍남문 광장의 다양한 층위의 미시담론을 추출하기 위해 ‘검색 내 검색’을 통하여 개인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였다. 이로써 풍남문 광장이 담는 다양한 층위의 미시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의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도시 광장 선행 연구

독일의 철학자인 Habermas는 공론의 장으로서 공적 영역(Public sphere)을 언급하였다(한승완 역, 2004). 과거 소수 권력층의 과시적 형태로의 공론장은 신흥귀족층의 문예비평과 시사토론의 사회모임이 살롱형태로 진화하였다. 이제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가상공간에서의 공론장은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공론장이 되었다. 매스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은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중, 블로그는 개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이에서 정보를 얻고 또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미시담론의 형성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상의 공론장이 전통적인 공론형성의 역할을 했던 현실공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가상공론장이 현실공간의 이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Thompson, 2002).

표 1. 광장과 인터넷을 통한 담론형성의 비교

비교항목	광장에서의 담론형성	인터넷을 통한 담론형성
공론형성과정에서의 접촉방법	전통적 대면접촉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에서의 접촉
공론형성에서의 책임성	공론형성을 위한 발언자나 내용이 공개되는 속성으로 책임성이 따른다.	발언에 익명성이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에 책임성이 줄수 있다
공론형성 참여자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제한	물리적 동시간, 동일 장소 사건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동일지역 주거 같은 공간적 제한이나 시간적 제한이 발생	가상공간에서의 접촉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적음
공론형성 참여자의 계층적 범위 제한	광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 등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가능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가능, 단 인터넷 사용의 숙련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공론내용의 범위	공론내용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사안일 경우가 많음	미시담론으로 개인적, 일상적 내용을 의견 교환할 수 있는데 까지 공론형성 내용의 범위가 확대

하상복(2010)은 광화문과 정치권력에서 광장은 역사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자유로움과 평등함을 바탕으로 집단성이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한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적 장소로 자연스럽게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광장에서 발생하여 기록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주조는 서구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현재적 광장의 사례를 통해 시장, 문화예술, 정치(이데올로기), 종교의례, 군중집회 등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들을 광장이 수행해 왔다고 한다(진영선 역, 2009). 이러한 점에서 광장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담론들과 개인적 일상경험의 확장 등을 논의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시담론의 형성의 장으로서의 블로그가 공공공간의 이용을 증가시키며 공공공간으로서의 광장이 공론을 형성시키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은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도시 광장의 형성과 담론의 형성

서울의 광장은 1990년대부터 2000년 후반까지 여의도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통해 서울의 상징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60년대 형성된 여의도광장은 정치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성 시 붙여진 이름이 5·16광장인 것에서도 당시 정치적 선전을 읽을 수 있으며 여기에 담겨진 집회도 대부분 기획된 것이었다. 국풍81과 같은 행사는 그 예이지만 온 국민을 감동과 눈물의 장으로 이끌었던 이산가족을 찾는 행사는 여의도광장이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억의 장소가 된 계기였다. 하지만 여전히 광장에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외쳐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여의도광장은 서구의 광장이 갖는 장소기억과는 달리 편향된 모습이었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대학 내 아크로폴리스광장, 삼민광장 같은 것은 도시의 공공적 광장형성에 대한 억압의 대리 만족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의도광장이 근대화 과정에서 군사정권시대의 행진이나 이산가족의 만남 등의 거대한 사건들을 담는 광장에서 도시 공원으로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광장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이 조성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2년 월드컵이었다. 서울시청 앞의 월드컵 응원을 위한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서울광장의 조성 계기가 되었다. 서울광장이 조성된 후 2009년에는 광화문광장이 완공되어 광장은 어느새 우리 도시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역도시의 활성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적 장치의 유행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하상복, 2010).

권범철(2007)은 서울광장의 장소성을 논하며 광장이란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며 그것의 성격, 즉 장소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즉 광장의 위치, 그리고 시대적 역사적 위치선정이 일단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광장이 권력·지식 주체화로 이어지는 푸코의 권력론에 입각하여 권력의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방도시의 광장형성이 지방권력의 장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써 장소마케팅이나 또한 기획된 행사로 채워지며 의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문화도시전략에 의한 것으로 얘기되지만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에 대한 의도가 동반함을 지적하고

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광장은 문화적인 공간으로 권력화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데 지자체에 의해 기획되는 광장 역시 문화적인 공간으로 권력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으며 정치·자본·미디어 권력의 이해에 포위되어 그 공간이 권력의 목적에 맞게 도구화 되어갈 수 있다(권범철, 2007).

이러한 점은 광장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시청 앞 광장이 국가 권력이 전시되는 공간으로, 때로는 민중들의 저항의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정치적 행사의 기억은 그 장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청 앞 광장이 서울광장이란 이름의 잔디광장으로 조성된 이후 선택적 공간관리와 문화예술행사 개최는 광장의 정치적 목소리의 조성보다는 개인적 경험과 기억의 공간으로 의도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광장조성의 의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오히려 역으로 광장공간에서의 사람들의 행위와 이에 대한 개인미디어를 통한 소개는 시민의 일상적·개인적 견해로부터의 담론형성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즉 광장 조성의 초기 모습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장의 사용양태나 기대가 변화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미시담론

담론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한다는 뜻이다. 담론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 담론형성의 과정을 크게 담당하는 것은 미디어의 역할이다. 마루타 하지메는 미디어 중 정보의 일방적 전송이라는 기존미디어 특히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인터넷은 공간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의 등장은 인간의 활동공간을 현실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화리·윤상현 역, 2011).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을 통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블로그에 집중하고자 한다. 블로그의 위키 백과 정의는 웹과 로그를 합친 낱말로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웹에 일기처럼 올려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글들의 모임이다. 블로그는 1인 미디어라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도시 내 1인 주거의 비율이 높고

있는 면이 현실공간에서의 추세임을 고려할 때 1인 미디어 블로그 역시 가상공간에서 더욱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즉 개인적인 의견이 집단적 공유를 얻으며 호응을 얻게 되면 기존의 대형 미디어에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 생각들이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미시담론이라 정의한다(이제이·성종상, 2009).

과거 광장이 정치성의 과잉 속에서 권력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현재의 광장은 일상과 문화의 향유라는 관점에서 그 기능이 더 다각화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적 기능, 특히 정치적 공론의 기능 외에도 개인적 경험이 새로운 매체를 통해 소통되며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담론으로까지의 변화 발전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광장을 통한 공론형성에 사전 협의나 조율 등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조일동(2009)은 광장에서 촛불시위의 집단적 경험이 일상에서 개인적 의미화나 행동에 영향을 끼침을 논한 바 있는데 광장에서의 집단적인 경험이 다시 개인의 미시적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역으로 블로그에 기술되는 여러 기술은 개인적인 경험과 이에 대한 생각들이지만 독자들이 함께 읽으며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경험이 검증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의견이 포괄된 미시담론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III. 풍남문광장의 미시담론적 분석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도시 광장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 광장의 형성과 담론의 형성의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담론 형성으로 미시담론의 등장을 논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으로 풍남문광장을 통해서 형성된 미시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풍남문광장의 조성의 배경 및 현황

풍남문광장은 전주시의 새로운 광장조성 결정으로 2012년 3월 20일 구 대건 신협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6월 조성되었다. 풍남문 광장의 주요 경관요소는 풍남문



그림 2. 풍남문광장 조성 후 전경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jeonju.go.kr/10149345710>



그림 3. 풍남문광장 조성 전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본 풍남문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jeonju.go.kr/10149345710>

이다. 전주는 조선시대 호남을 관할하던 전라감영의 소재지로 성곽으로 둘러져 있었으며 성곽의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었다. 이중 남쪽 출입문이 풍남문으로 일제에 의해 전주의 성벽과 성문이 거의 헐린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있다. 풍남문이라는 이름은 풍패의 남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풍패란 중국 한고조 전한 고제의 고향이다. 이성계 조상들의 고향이 전주라는 점에서 전주를 풍패로 칭하여 조선 왕조의 발상지임을 나타낸다.

풍남문광장은 풍남문의 동측 성벽이 있던 자리이지만 성벽을 복원하지 않고 광장의 바닥을 경사진 요철로 일부 만들며 전체적으로 바닥의 패턴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하고 있다. 바닥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식재를 위한 플랜트, 목재와 철재로 된 벤치를 갖추고 있다.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조성 의도는 풍남문에 대한 조망의 원활함이었다. 광장의 물리적 위치가 성벽 자리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전통적 디자인 언어보다는 스케이프를 탈 수 있는 요철 등의 현대적 분위기 디자인을 보여줌으로 과거, 근대 그리고 현대를 이어주는 장소로서 의도하였다.

조성된 초기 전주시는 2012년 9월에는 세계소리문화의 축제를 진행함으로 광장의 축제 수용기능을 시험하였다. 그 후 풍남문은 2015년 8월에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키고 조용한 증언의 현장으로서의 역할로 일제소녀상을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모와 시위, 무궁화 축제 같은 행사, 그리고 여러 젊은이들의 음악 페스티벌을 열 수 있는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다.

2. 블로그에 나타난 풍남문광장

블로그 검색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전주 풍남문광장을 검색하였다. 2011.1.1부터 2016.5.23 현재를 검색기간으로 한 결과는 1,657건이다. 풍남문 광장이 2012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성 1년 전인 2011년 1월 1일부터 풍남문광장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검색한 결과 2011년 검색된 69건의 블로그에서 주요 내용은 풍남문광장 조성계획이다. 2012년 170건, 2013년 283건, 2014년 545건, 2015년 367건, 2016년 5월 23일까지 223건이 검색되었다. 이는 풍남문광장이 블로그에 언급된 횟수가 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2014년은 545건으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며 2015년보다도 더 많은 건수를 보이는 데 이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집회 등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광장을 통해 다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시기순과 관련도순 두 가지가 있는데 관련도 순으로 정렬하면 검색된 1,657건의 블로그 중 뒤로 갈수록 광장 자체와 관련한 의견이나 사진보다는 단순 언급 등의 관련도 낮은 블로그도 상당히 볼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정렬된 블로그 중 상위 150건의 자료를 통해 검색 기간에 대한 풍남문광장의 기술 경향을 살펴보았다.

각 블로그를 보며 의미단위를 이루는 키워드를 우선 정리하였다. 다시 본 논문에서는 이 키워드들을 시기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시간적으로 장소의 의미가 변화해가는 경향을 추출해내고자 함이다.

키워드를 나열해보면 표 2와 같다. 연도별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풍남문광장이 조성된 2012년도에는 주로 지역 특성과 관계된 행사에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소리축제, 판소리, 비빔밥축제 등이 그것이다. 이는 풍남문광장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여기에 지역문화행사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등장하며 남부시장에 마련된 청년물과 연계한 젊은이들의 행사가 발견되며 또한 한옥마을에서 남부시장으로 이어지는 여행길의 노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장이 자전거를 타고 들렀던 장소로의 언급이나 광장 내 조형물에 대한 개인적 감상 등이 언급됨으로 광장에 대한 개인적, 일상적 경험의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에 비해 담론형성의 장으로는 아직 다양한 행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2014년도에는 풍남문광장에 대한 블로그의 글이 급속도로 늘어남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담겨진 행사도 다양하다. 프리마켓행사 등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행사가 눈에 띈다. 이는 광장으로 인한 미시담론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월호사건과 관련된 추모행사는 풍남문광장이 미시담론의 장에서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미시담론에서 공론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견의 계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는 2014년 천주교정의구현 천주교구사제단이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봉헌함으로 여러 정치적 견해들이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로 열리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블로그를 통해 찬반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5년도에는 풍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풍남문길과 감영복원의 담론이 있으면서 이와 연관되어 전라감영, 전복도청 등의 키워드가 발견되고 있다. 2014년 벌어진 세월호에 대한 애기나 천주교사제단의 집회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풍남문광장이 공론의 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위안부 소녀상 건립은 이 시기 중요한 블로그의 이슈였다.

2016년도에도 그간의 세월호, 위안부 소녀상, 1인 시위 등의 사회적 정치적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풍남문의 미디어 파사드 행사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풍남문 조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당초 조성 목적에 풍남문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시

표 2. 연도별 풍남문광장 관련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연도별 주요 키워드	주요 검색 블로그 내용에서 발견되는 키워드
2011.01.01. -12.31, 69건	풍남문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
2012.01.01. -12.31, 170건 주요키워드 : 세계 소리축제, 판소리, 비빔밥 축제 순례대회, 행사	(2012.08.16) 전주 세계 소리축제, 판소리, 전통한옥, 맛, 음식, 전통 문화도시 (2012.08.30) 대리석길, 성벽, 풍남문 (2012.09.14) 전주 세계 소리축제, 경기전, 전주 한옥 마을, 전주 한방 문화센터, 농악 공연 (2012.09.15) 전주 세계 소리축제, 국악 공연, 판소리 (2012.10.17) 전주 한옥마을, 전주 비빔밥 축제, 행사 (2012.10.18) 순례길, 세계 순례 (2012.11.10) 시계 순례대회, 순례길 (2012.11.12) 순례대회, 순례길, 행사
2013.01.01. -12.31, 283건 주요키워드 : 비빔 밥 축제 등 지역특성+ 지역문화행사, 청년물, 광장의 조형물, 자전거, 일상	(2013.03.05) 광장의 조형물 (2013.06.10) 전주 3.13만세운동, 행사, 지역 문화행사 (2013.09.05) 자전거, 일상 (2013.09.07) 전주 남부시장, 전주 맛집, 청년물, 남부시장 (2013.10.22) 전주 비빔밥 축제, 공연, 전시, 축제 (2013.10.26) 전주 비빔밥 축제 (2013.10.28) 세계 소리축제, 행사 (2013.11.05) 전주 한옥마을
2014.01.01. -12.31, 545건 주요키워드 : 한옥마을 여행, 세월호, 청년물, 행사, 프리마 켓, 공연	(2014.03.16) 전주 여행 (2014.03.24) 천주교, 행사, 시민단체 (2014.03.31) 전주 여행, (2014.04.12) 희망광자 서포터즈, 활동, 외국인, 가족, 연인, 기부활동 참여, 홍보 (2014.04.22) 풍물놀이, 퍼레이드, 축제 (2014.05.06) 국내여행, 풍남문 광장, 젊음, 꽃 (2014.05.08) 전주여행, 한옥마을, 사람 많음, 풍남문 광장, 여유 (2014.05.18) 전주 한옥마을, 세월호 서명운동, 전주 여행 (2014.06.21) 가게, 활기참, 프리마켓, 골목, 전주 한옥마을, 전주 맛집 (2014.06.21) 전주 나들이, 당일치기 여행, 행사 (2014.06.30) 풍물놀이, 공연, 퍼레이드, 풍물 활성화 (2014.07.13) 써머나잇 프리마켓, 한옥마을 맛집 (2014.07.31) 예교충전 조행사, 유동인구, 행사, 규정, 허가 (2014.08.10) 프리마켓, 써머나잇 (2014.08.11) 광장, 프리마켓, 행사, 버스킹 공연 (2014.08.18) 행사, 광복절 행사, 캠페인, 독도 (2014.08.19) 전주 여행 (2014.09.01) 전주 한옥마을 맛집 투어, 전통성당,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단, 전주 한옥마을, 맛집, 한방 문화센터 공연, 한옥마을 투어 (2014.10.04) 프리마켓, 보따리, 풍년제과 (2014.10.06) 전주 한복데이, 행사 (2014.11.05) 전주 여행, 청년물, 전주 모주, 전주 남부시장, 전주 오목대, (2014.11.05) 전주 풀풀마켓 (2014.11.24) 행사, 축제, 프리마켓, 카페, 풀풀마켓 (2014.12.19) 남부시장, 전라감영, 풍남문, 풍남문 광장 운영 개선방안, 휴식, 문화공간

표 2. 연도별 풍남문광장 관련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계속)

연도별 주요 키워드	주요 검색 블로그 내용에서 발견되는 키워드
2015.01.01. -12.31, 367건 주요키워드 : 세월호, 천주교 위안부 소녀상	(2015.02.05) 세월호, 유가족, 순례 (2015.04.22) 전라감영, 전북도청, 풍남문, 세월호, 전 동성당 (2015.08.06) 신부, 천주교 (2015.10.28) 전주 여행
2016. 01.01. - 05.23, 223건 주요키워드 : 프리마켓, 미 디어 파사드	(2016.01.06) 제야의 행사, 행사, 새해, 시민, 야시장, 공연, 청년물, 관광객, 전야제, 전주 여행 (2016.01.10) 전주 여행, 평화의 소녀상, 1인 시위, 세월호 (2016.01.14) 전주 영화의 거리, 경기전, 전주 비빔밥, 전주 남부시장, 청년물, 야시장, 세월호, 위안부 소녀상 (2016.02.17) 여행, 관광, 한옥마을, 풍남문 (2016.03.30) 전주 여행, 전주 한옥마을, 남부시장 청 년물, 풍남문, 미디어 파사드 행사, 소녀상 (2016.04.20) 전주 여행,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전주 청년물, 풍남문, (2016.05.07) 전일슈퍼, 가맥, (2016.05.07) 프리마켓, 행사, 풀마켓

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풍남문광장이 당초 조성 목적에 대한 새로운 경관적 시도가 발전하는 가운데 공론형성의 장이라는 광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감을 의미한다.

이중 중복되는 키워드로 행사, 여행, 한옥마을, 마켓, 축제, 공연, 세월호, 순례 등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풍남문광장이 장소로서 개인화하는 경험의 장이 될 수 있고 사회적 문화적 이벤트의 장으로도 이용되며 전주시의 도시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소가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풍남문광장을 통한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행사, 전주시의 도시정체성에의 구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전주 풍남문광장에 대한 검색 내 세부 검색으로 개인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보았다. 당초 검색된 1,657건 중 ‘개인적’을 검색조건으로 추가했을 때 128건, ‘역사적’을 추가했을 때 69건, ‘정치적’을 추가했을 때 35건, ‘사회적’을 추가했을 때 60건, ‘경제적’을 추가했을 때 33건, ‘문화적’을 추가했을 때 20건이 검색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세부 검색에서 분석할 수 있는 풍남문광장을 통해 얻어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블로그 미시담론을 통한 풍남문광장에 나타난 광장의 의미

1. 풍남문 광장+개인적

‘검색 내 검색’으로 개인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풍남문광장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평가 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광장에 대한 미시담론의 형성은 개인의 장소에 대한 의미화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검색으로 128건의 블로그가 검색되었다.

20120817의 여행객의 블로그의 경우 깨끗한, 넓은, 남부시장을 들렀다 가는 곳, 제일 먼저 방문, 여행객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 복잡, 활기참, 풍남문과 전동성당이 동시에 보임이라는 글들을 볼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전동성당과 풍남문이 동시에 보이므로 전주에 대한 첫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필명 마들가리라는 초보사진작가의 2013년 8월 17일 작성된 블로그로 눈길을 끄는 조각상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 과거로부터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글이 있다. 광장 내 조각물의 설치가 공공예술로 개인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풍남문광장이 전통적인 요소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젊은 세대의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한데서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매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또 한 여행자의 2013년 9월 30일 블로그에서는 전주에 도착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으로 풍남문광장이 전주시를 여행하는 데 중요한 노드가 됨을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풍남문광장에 대한 개인화의 경험이 여행객과 전주시민의 경우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이 여행객의 블로그 글로 전주시민 블로그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2. 풍남문광장+역사적

전주시가 문화도시 가운데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했던 점은 전주시의 장소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컸음을 시사한다. ‘검색 내 검색’으로 역사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69건으로 풍남문광장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나 광장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 주를 이룬다. 전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2012년 10월 9일 전주시 블로그에서는 풍남문광장이 과거, 근대 그리고 현대를 이어주는 역사적 장소로 의미를 부여하며 소개하고 있다. 또한 풍남문을 조망할 수 있는 광장으로 풍남문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풍남문이 풍패의 남쪽 문이라는 뜻과 풍패의 어원을 풀이한 것도 풍남문의 역사적 가치와 관계가 있다.

2013년에는 광복회 전주시 지회가 전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지며 이 행사가 신흥고 교정을 출발해서 만세운동의 형장이었던 풍남문광장까지 시가 만세행진을 벌인 것이 블로그에 나타나는데 역사적 장소에서 과거의 행사를 재현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전라북도 블로그에서는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며 전라북도에서 전주와 군산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전주는 기억의 광장 즉 풍남문광장, 군산은 동국사 앞에서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군산이 일제강점기 수탈의 중심지로 동국사가 일제 강점기 지어진 일본식 사찰로 소녀상건립의 장소로 선정된 데 비해, 풍남문광장은 전주시민의 역사의식에서 과거, 근대 그리고 현대를 이어주려는 장소로 의도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3. 풍남문광장+정치적

광장은 정치적 담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광장에서는 특히 시민들의 직접적인 시위나 집회, 그리고 정치적인 선거 유세 등이 일어난다. 원도연(2008)은 전주 기전여고를 졸업한 혼불의 최명희 작가는 전주의 정신을 저항과 풍류라는 말로 표현하며 동학혁명에서 보이는 근대화에서의 농민저항이나 산업화에서의 소외된 정서 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의 정치적 정서가 풍남문광장에 담겨짐을 기대하며 검색을 실행하였다.

정치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 내 검색'을 했을 때 총 검색 건수는 35건이다. 블로그는 2014년 작성된 것이 많은데 이 시기 풍남문광장에서의 정부를 비판하는 천주교사제단 집회가 이루어지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남으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집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중 풍남문광장의 정치적 이슈가 담긴 글은 2014년 3월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집회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애기된 사제들의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글이 많은데 풍남문광장에서의 집회와 이에 대한

블로그의 찬반 글들이 이어지며 공론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2014년 전주시장의 특강 중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청년몰 포함)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풍남문광장을 설치한 데 대한 설명, 201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등을 볼 수 있었다. 2016년 2월 여행자에 의해 세월호 사건 이후 여러 담론이 풍남문광장에 담기며 광화문광장 같아졌다는 의견은 광화문광장의 정치적 장소로의 성격이 풍남문광장에서도 나타나 정치적 의견을 담 아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 여행자의 글로 '그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라며 세월호의 노란리본이 풍남문광장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나 근처 청년몰 국밥집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이 노란종이에 나란히 쓰인 것을 보며 정치적 의견이 서울보다 전주에서 더 열려있는 지역적 정서를 언급한 것들이 보인다.

4. 풍남문광장+사회적

사회적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 내 검색'을 해본 결과 60건의 블로그가 검색되었다. 이 중 풍남문광장에서 이루어진 전주세계소리축제나 창작 뮤지컬 같은 문화 공연과 사회적 기업의 행사 그리고 민주노총의 시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설 아즈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이 꾸미는 벼룩시장 행사들이 풍남문광장을 통해 2012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이 여행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 된다.

또한 풍남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시위나 2015년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룬 집회가 이루어짐을 특별하게 볼 수 있다. 이는 풍남문광장이 여행객들에게 전통성당과 풍남문광장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조성함으로 사회적인 시위나 공론이 형성되는 것에도 매우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소녀상과 세월호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키워드로 풍남문광장의 별명으로 기억의 광장과 세월호의 광장 등이 언급된다.

풍남문광장은 문화예술의 공간 그리고 어울림의 장, 문화적 행사의 장소로서의 사회적 장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시위 등으로 전주의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 가는 장임을 알 수 있다.

5. 풍남문광장+경제적

33건의 검색된 블로그 중 경제적 담론이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시의 아트폴리스정책에 의한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특화광장,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음을 블로그에서 언급하고 있다. 2014년 1월 작성된 블로그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수혜 등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의 자립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풍남문광장에서 다문화 소통한마당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캠페인에서 풍남문 광장에서 열리는 농축산물과 공산품 특별할인판매 및 시장가요제 등을 2012년 9월 작성된 블로그를 통해 볼 수 있다.

6. 풍남문광장+문화적

검색된 블로그는 20건으로 전주시의 문화도시로서의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풍남문광장이 조성된 2012년부터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었다. 2012년 9월 23일 작성된 블로그에서는 전주 풍남문광장 공연 창작 뮤지컬 ‘이화 우 흠날릴게’ 제목으로 풍남문광장에서 열리는 문화공연을 통해 문화도시로 비상하는 우리 동네라며 전주시에 대한 기대가 소개되고 있다. 이런 뮤지컬 공연이 광장의 공공적 특성상 무료로 운영됨으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확대한다는 점은 광장의 문화적 선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3년 10월 작성된 한 블로그는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소개하였다. 풍남문광장 등 한옥마을 각지에서 열리는 야간공연에 대한 여행 작가의 글을 볼 수 있다. 한옥마을 향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 야외 공연장 등이 풍남문광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바로 인근에 경기전이 있음으로 뮤지컬 공연이나 야간 공연, 여러 주변의 갤러리로의 연결이 가능하여 풍남문광장이 문화행사의 노드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풍남문광장이 열린 무료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음이다. 또한 사진작가나 동호회에게 전주시가 사진실사로 찾는 곳임을 볼 수 있다. 이 중 2016년 3월 13일에는 황용운 작가의 전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한지에 사진을 올려놓는 전시 등이 전주시에 의해 블로그에 올려졌다.

7. 소결

이와 같이 풍남문광장은 전주시 도시정체성 제고를 위한 당초 광장 조성의 의도를 만족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행사들을 담아내면서 그 성격에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 여행을 통한 장소 경험이나 풍남문광장의 역사적 장소성을 고려한 역사적 사건 재현행사,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위 및 집회, 재래시장 상권을 위한 경제캠페인, 열린 문화공연 등 개인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층위의 활동들을 담고 있다. 블로그의 활동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장소의 이용 확장성을 더 쉽게 하고 있

표 3. 풍남문광장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층위의 블로그 콘텐츠 (2011.01.01 - 2016. 05.23 기간 검색)

블로그내 블로그 검색 조건	검색 건수	주요 내용 및 특이점
풍남문광장+개인적	128건	-전주시의 첫인상으로서의 공간경험 -풍남문 내 조각품이나 경관요소 등에 대한 개인의 의미 부여 -전주시 여행에서 얻은 경험이나 감흥 소개
풍남문광장+역사적	69건	-풍남문광장의 역사적 장소성이 갖는 의미 -전주시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풍남문에서의 재현 행사 -평화의 소녀상
풍남문광장+정치적	35건	-세월호 사건이후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집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집회 -2014년 세월호 사건 등으로 특히 많이 언급 -전주시의 광화문광장같은 정치적 이슈를 담는 장으로 이용
풍남문광장+사회적	60건	-소셜 아츠페스타 등의 사회적 기업에 의한 베품시장 행사 -세월호 사건이나 민주노총의 시위 -문화공연과 사회적 집회가 공존하는 광장으로 역할을 담당
풍남문광장+경제적	33건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에 의한 특화거리, 특화광장 형성이 경제적 목적과 관계 있음 -다문화 가정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들인 행사의 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의 장
풍남문광장+문화적	20건	-광장내 시민을 위한 무료 문화행사

으며 미시담론에서 출발한 의견들이 공유되며 검증되는 공론화 과정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V. 결론

오랜 시간 도시 공론의 장으로서 광장이 역할을 해왔다. 공론의 장이 점점 더 소수의 점유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인터넷의 사용으로 그 속도와 양을 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주시 풍남문광장이 2012년 도시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특화광장이나 특화거리 조성 및 함께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이라는 광장 본연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논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라는 도구를 통해 전주시 풍남문광장에 대한 개인화나 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1,657건의 블로그 중 관련도 순으로 정렬했을 때 먼저 나타나는 150개를 살펴봄으로써 얻은 경향은 조성 초기인 2012년 풍남문광장이 전주시에서 기획하는 다양한 행사를 여는 장으로 언급되었다면 2013년 남부시장의 청년몰이 열리고 한옥마을에서 남부시장으로 가는 길목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언급됨으로 광장이 도시 공간적 노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풍남문광장이 초기 조성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문화행사의 장이었던데 비해 블로그의 검색 건수 증가폭이 급격해지는 2014년 광장은 다양한 성격의 행사 및 집회를 담으며 공론의 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문제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위 등으로 도시의 정치적인 의견을 광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블로그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되며 정착되어감과 함께 위안부 소녀상이 광장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전라감영의 복원은 풍남문광장이 풍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전라감영로 축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축이 만나는 노드로서의 역할이 언급되었다. 2016년에도 풍남문광장의 정치적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계속되며 당초 풍남문에 대한 조망을 개선하는 경관적 측면에서의 조성의 도가 미디어파사드 행사등으로 발전되며 풍남문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것을 광장이 담아내고 있다.

풍남문광장을 통한 다양한 층위의 담론을 알아보기 위해 블로그의 '검색 내 검색'을 통해 개인적, 역사적, 정치

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개인적이라는 키워드로 풍남문광장에 대한 개인적 장소 경험은 시민보다 여행자의 블로그 기록이 월등히 많으며 주로 깨끗하고 분주함, 그리고 전통성당, 풍남문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여행의 출발지로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정치적이라는 키워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과 집회, 이에 대한 찬반론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이라는 키워드는 세월호 특별법이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글이 주로 많았고 사회적 기업들의 베틀시장 행사 등도 자주 등장하는 이슈였다.

경제적이라는 키워드는 풍남문광장이 전주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아트폴리스정책에 의한 하나의 특화광장으로 조성된 것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것이 전주시의 경제적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화적인 키워드에서는 한옥마을과 가까운 도보 연결 속에서 조선의 역사를 강조한 문화행사나 한지, 뮤지컬 공연, 야간 문화행사 등이 주로 검색되는 내용이다.

풍남문광장이 2012년 조성되어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은 면에서 보다 폭 넓은 개인화나 일상적 경험을 통한 담론의 형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블로그가 여행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 주를 이룸으로 하나의 의견이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공유로 이어지기보다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주민인 전주시민의 블로그로서 전주만의 독특한 담론형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시담론 형성기반이 미약함을 역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급증한 블로그의 양이나 동시에 풍남문광장의 이용 양상이나 기대가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남문광장이 전주시의 특화된 장소로서 지자체의 장소마케팅에서 의도된 광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즉 초기 조성에 비해 현재 사용되는 광장의 양태는 그보다 다양한 행위와 담론을 담아내고 있음을 블로그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결국 풍남문광장 이용의 시간적 연륜과 좀 더 많은 전주시민의 블로그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풍남문광장은 전주시의 미시담론형성에서 도시공론의 장으로서까지 기능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범철, 2007, “서울광장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화리·윤상현 역, 2011,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서울: 심산(丸田一, 2008, 「場所論」, 東京: NTT出版).
- 원도연, 2008, “전라감영의 의미와 복원사업의 기본방향,” 지방사와지방문화, 11(2), 73-111.
- 이제이·성종상, 2015, “블로그에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 한국조경학회지, 43(1) 29-39.
- 장택수 등 역, 2009, 서울: 「광장」, 생각의 나무.
- 조일동, 2009, “사회극으로서의 촛불,” 한국문화인류학, 42(1), 179-220.
- 한승완 역, 2004,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출판
- 하상복, 2010, 「광화문과 정치권력」,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홍성태, 2006,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 Thomson C.W., 2002, Urban open space in the 21st centur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0, 59-72.
- 다음지도 웹사이트, <http://map.daum.net>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8%94%E>
[B%A1%9C%EA%B7%B8](https://ko.wikipedia.org/wiki/%EB%B8%94%E)
<http://beet38.blog.me/30134234614>
<http://crescend.co.kr/290>
<http://blog.daum.net/00000000000413/4711773>

- <http://blog.daum.net/jnp12/31>
<http://blog.jb.go.kr/220452984637>
<http://blog.jeonju.go.kr/10149345710>
<http://blog.naver.com/alwj192?Redirect=Log&logNo=60200801708>
<http://blog.naver.com/gareboon/100026731284>
<http://blog.naver.com/muse988/220654006890>
<http://blog.naver.com/wopjow4331/20166205189>
<http://getabout.hanatour.com/archives/155992>
<http://japheth.tistory.com/491>
<http://smallattic.egloos.com/5948241>
<http://tkdgur55.blog.me/110174301515>

교신 : 김준영,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이메일: junyoungkim@jj.ac.kr)

Correspondence: Jun-Young Kim, 55069,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ju University (Email: junyoungkim@jj.ac.kr)

투 고 일: 2017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11일
투고확정일: 2017년 4월 17일